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Coping Strategy Indicator)의 타당화 연구*

신 혜 진[†] 김 창 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대처 양식 측정도구로서 심리 측정적 조건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스트레스 대처 전략 평가지(Coping Strategy Indicator: CSI, Amirkhan, 1990)가 한국 문화에서도 문화간 타당도를 가지고 그 대처 양식의 구성 개념과 차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번안된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K-CSI)를 한국 대학생 279명에게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CSI 원 검사에서 제시된 대처 차원의 구조와 비교하였다. 또한 원 검사의 표준화 연구가 10여 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현재 재학 중인 미국 대학생 312명에게 영문판 원 검사(CSI)를 함께 실시하여 원 검사의 심리측정적 정보와 함께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요인분석 실시 결과, 원 검사와 동일한 사회적 지지 추구(social support seeking), 문제중심 대처(problem solving), 회피 중심 대처(avoidance)의 3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 요인 부하량이나 전체 설명량은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 집단 모두 원 검사의 표준화 과정에서보다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신뢰도와 각 하위 척도별 평균 점수 및 표준 편차도 원 검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미국 대학생 집단 모두 매우 양호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생 집단에 대한 K-CSI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 값이 .84였으며 하위 척도에 대해서는 각각 .90, .88, .67이었다. 또한, 하위 척도간 상관관계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요인 행렬과 함께 각 대처차원의 상호독립성을 뒷받침 해주었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하위척도 점수와의 비교에서도 한국과 미국 대학생 두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양식만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선호한다는 성차를 보여 스트레스 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차원만이 성별의 영향을 받는다는 원 검사의 보고와 다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대처전략검사지(CSI), 문화, 문화간타당도

* 이 연구는 2002년 서울대학교 BK21 아시아 태평양 교육발전 연구단의 학술 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 교신저자 : 신 혜 진,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개포1차 우성아파트 9동 1202호

전화 : 02)557-3741 E-mail : hiejshin@hotmail.com

오늘날 상담 및 심리치료의 관심은 더 이상 심리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한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내담자가 호소하는 어려움 속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이끌어내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상담 및 심리치료 목표로 인식되고 있으며 (Holahan, Moos, & Schaefer, 1996;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이에 따라, 인간을 역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심리적인 건강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보고 그 역동을 이해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적응 노력 과정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대처의 개념이다. 대처(coping)란 개인의 수용 능력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내적·외적 요구들을 다루려는 모든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을 매개하는 핵심 기제라 이해되어 왔다(Folkman & Lazarus, 1984; Moos & Schaefer, 1993). 따라서 대처양식을 규명하는 일은 한 개인이 특정 스트레스 상황 자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뿐 아니라, 스트레스원의 긍정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부분 및 스스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원이 무엇인지와 같은 실질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개인의 적응 기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가능케 해주고, 나아가 임상장면에서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개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적응에 있어 대처개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처 양식을 유형화하려는 노력이 다양한 문화 집단을 대상으로 확장되어 왔는데(Broody, 1995), 이처럼 다문화적 관점에서 대처 양식을 탐색한 연구들에 따르면, 스트레스 대처 과정에서 개인, 상황 요인과 함께 특정 문화의 가치관이나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Aldwin, 1985, 1994; Kim, 1994; Lazarus & Folkman, 1984). 즉 문화에 따라 경험될 수 있는 스트레스 원의 종류라든지 실제 대처 행동을 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를 형성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의 인식 및 대처 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Aldwin, 1994). 실제로, 서로 다른 문화 집단을 대상으로 대처 양식을 비교한 연구들에서 타문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대처양식이 발견되거나(김교현, 노명래, 손정락, 전경구, 조신웅, 1994; Hwang, 1977; Kim, 1994; Yue, 1994) 같은 대처 행동이라고 해도 문화권마다 자기 다른 의도와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Chang, 2001; Essau & Trommsdorff, 1996; McCarty & Weisz, 1999; Seiffge-Krenke & Shulman, 1990).

이렇게 볼 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들의 적응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대처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처 행동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대처 전략 측정도구의 경우, 주로 서구 문화에서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문화간 타당화 작업을 통해 다른 문화에서도 신뢰롭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 검사가 제시하는 대처의 구성 개념이나 차원이 문화간 안정성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어야 이를 토대로 대상 문화집단의 대처 양상을 의미있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Ager & Maclachlan, 1998; Hobfoll et al., 1994; Parker & Endler, 1992; Schwarzer & Schwarzer, 1996).

한편, 대처 기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자 지난 20년 간 여러 대응전략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Amirkhan(1990)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는 경험적으로 수집된 대처 전략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표준화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심리측정적 요건들을 충실히 만족시키는 실용적인 대응 전략 측정도구로 평가받아 왔다(Ager & Maclachlan, 1998; Amirkhan, 1994; Bijtrevier & Vertommen, 1997).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는 총 36문항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서, 각각 11문항으로 이루어진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피험자가 지난 6개월 간 일어났던 스트레스 사건 중 한 가지를 회상하면서 실제 취했던 대처 반응을 사용한 정도에 따라 3점 리커트 척도로 [1점(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부터 3점(많이 사용하였다)까지] 표시하면, 하위 척도 점수는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대부분의 대처 양식 측정도구들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한쪽만의 방식으로 제작됨으로서, 그 결과가 대처기제의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과 달리, Amirkhan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 및 대상집단에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대처 양식의 기본 구조를 밝혀내고자 문항 추출에 있어 연역적 방식과 경험적 방식을 조화롭게 통합하였다. 연역적 방식에 의해 엄격한 내적 일치도를 갖춘 측정도구들은 경험적 검증이 부족할 수 있고 경험적 방식으로만 구성된 측정도구들은 이론과의 연계가 빈약하여 개념적인 통찰을 제공해 주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는 기존 측정도구들로부터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추출된 문항들과 경험적으로 수집된 대처 반응들을 조화롭게 통합시켰을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성된 검사를 다양한 집단 및 스트레스 상황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심리측정

적 요건을 안정적으로 만족시키는 문항만을 최종적으로 선별해 내는 방식을 취하였다. 나아가 Amirkhan은 이러한 통합적 방식을 통해, 다양한 대처 행동들을 의미있게 묶어낼 수 있는 3가지 보편 타당한 범주를 제시하였다. 이들 세 대처 양식은 비록 모든 대처 반응들을 완벽하게 포괄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처 구조를 밝혀내었다(Amirkhan, 1990).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에서 제시한 문제해결 중심(problem solving), 회피 중심(avoidance), 사회적 지지 추구(social support seeking)의 범주는 그동안 대처 연구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합의되어 온 문제 중심-정서중심(Folkman & Lazarus, 1980), 회피-접근(Roth & Cohen, 1986), 등의 대표적 대처차원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처럼 대처 반응으로부터 전략, 유형에 이르는 위계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대처 차원의 개념들은 평가에 있어 대처 반응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하고, 개인 특성 및 신체 정신적 적응과 대처 기제와의 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는 가상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 실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피험자들이 취했던 대처 양식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이상적으로 정형화되었거나 기대되는 대처 양식이 아닌 실질적 대처 기제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수 차례에 걸쳐 실시된 표준화 작업으로 타 평가도구들에 비해 심리측정적인 요건을 충실히 만족시키고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새로운 피험자 집단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위 척도간에 상호 독립적인 개별성이 뚜렷하여 각기 다른 대처 차원을 평가할 수 있으며, 다차원 점수구조를 갖추고 있어 개인이 여러 하위 척도에 대해 복합

적으로 보이는 반응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짧고 간편한 형태로 실시와 해석이 용이하며 경제적이란 것이 측정도구로서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해결 중심, 회피, 사회적 지지 추구의 대처 차원은 광범위한 스트레스 상황 및 대상 집단을 포괄할 수 있는 대처 기제의 기본 틀로서 지지되어 왔으며, CSI와 함께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개정판 스트레스 대처 양식 질문지(Ways of Coping Revised: WOC-R; Folkman & Lazarus, 1985) 및 COPE(Caver et al., 1989)와의 비교 연구에서도 하위척도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그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다(Clark & Bormann, 1995).

그러나 스트레스 대처 양식 평가도구로서 이와 같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언어나 관습, 규범이 다른 문화 집단에서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의 요인 구조 및 활용가능성을 탐색해 보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Parker & Endler, 1992). 특정 문화의 가치, 신념, 태도 등이 평가 도구의 실시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의 문화간 타당도 검증 작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국내의 경우 개정판 스트레스 대처 양식 질문지(Ways of Coping Revised: WOC-R, Folkman & Lazarus, 1985)나 스트레스 상황대처 검사(Coping Inventory of Stressful Situation: CISS; Parker & Endler, 1990)와 같은 스트레스 대처 양식 측정도구들의 문화간 타당도를 확인해 보는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예컨대 박용천과 김광일은 스트레스 상황 대처 검사(Coping Inventory for Stressful

Situation: CISS, Endler & Parker, 1990)를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탐험적 요인분석한 결과 원 검사에 제시된 과업중심, 정서중심, 회피 중심의 3가지 하위척도 구조를 얻었으나, 총 48개의 문항 중 회피 중심 하위척도에서 4문항, 정서중심 하위척도에서 5문항이 불명료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김광일, 박용천, & Noh, 2000). 이는 조한익(2000)이 흑인청소년들을 대상으로 CISS의 요인구조를 탐색하여 얻은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원 검사에서 정서중심 대처 차원과 회피 중심 대처 차원에 속했던 항목들이 과제 중심 대처 차원에 부하됨으로써, 백인 집단에 비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흑인 청소년 집단 고유의 문화적 특성이 대처 양식에 반영되고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트레스 대처 평가 도구가 표준화된 집단과는 다른 문화적 배경의 집단에 적용되기에 앞서 문화간 타당도가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Coping Strategy Indicator)를 번안하여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 문화에서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의 사용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의 요인 구조와 미국 대학생 집단에서 추출된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의 요인 구조를 비교하고,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가 제시하고 있는 대처의 구성 개념과 차원이 한국 문화에서도 신뢰롭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 동안 대부분의 대처 양식 평가 도구가 서구 문화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다양한 문화 집단에 대해서 그 구성 타당도 검증의 실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의 문화간 타당도에 대한 정보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가 문화적 배경이 상이하게 다른 한국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방 법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 집단과 미국 대학생 집단이 각각 표집되었으며, 한국 대학생은 서울의 S대학과 Y대학, 경기도의 B대학, 지방의 C대학과 H대학의 학부생 279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그중 여학생이 204명, 남학생이 75명이었다. 미국 대학생 집단은 전원이 플로리다 대학 학부생이었으며 여학생이 223명, 남학생이 89명으로 총 312명이 참가하였다. 연령범위는 한국 대학생 집단의 경우, 만 18세에서 만 31세로 평균 21.0세(표준편차=2.18)였다. 미국 대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연령범위가 미국 연령으로 17세부터 33세로 평균이 20.9세(표준편차=1.58)였다. 학생들의 전공은 사범대, 경영대, 공대, 인문계, 예체능계에 걸쳐 다양하였다.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평가도구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처 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Amirkhan(1990)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로 자기 보고식 형태의 설문지이다. 피험자는 최근 6개월 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중요한 사람을 잃은 것부터 시험의 실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종류의 스트레스 포함) 중 한 가지를 떠올린 후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항이 제시하는 대처 반응을 취했던 정도에 따라 3점 척도(1-전혀 하지

않았음, 2-조금 했음, 3-많이 했음)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설문지는 전체 33문항이며 대처 양식의 유형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problem solving), 회피중심(avoidance), 사회적 지지추구(social support seeking)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척도는 각각 11문항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를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원 검사가 측정하려는 내용에 충실하면서도 번안 대상 문화의 피검사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친숙한 표현으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번안과정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2개 국어에 모두 능숙한 유학생과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원생 및 상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연구자가 1차 번안한 내용을 반복 수정하는 역번역 방식이 도입되었다.

절차

한국 대학생에게는 연구자가 번안하여 수정한 스트레스 대처 전략 평가지(K-Coping Strategy Indicator)가 사용되었다. 검사는 미리 강사의 양해와 학생들의 참여 동의를 받아 학생들에게 검사의 목표를 설명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답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수업시간에 실시하였다. 한국 대학생에 대한 검사 실시는 2002년 5월 한달 동안 이루어졌다.

미국 대학생에게 영문판 Coping Strategy Indicator가 사용되었으며 피험자 집단은 전원이 플로리다 대학 학부생이고 2001년 10월과 11월에 걸쳐 플로리다 대학에 연구자가 방문학생으로 체류하는 동안 같은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가 제

시하고 있는 대처의 구성 개념과 차원이 한국 문화에서도 신뢰롭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번안된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K-CSI)를 실시한 결과와 미국 대학생에게 원검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 요인구조를 상호 비교하였다. 고유치(eigen value) 1.0을 기준으로 하여 스크리 검사(scree plot)를 실시하여 요인 수를 지정한 후 주성분 분석으로 검증하였으며 요인축의 회전 방식은 Varimax 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요인분석 결과 얻어진 각 하위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고 하위 척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원 검사가 제시한 기준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또한, 내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 척도간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별, 나이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각 하위 척도 점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는 SPSS 10.0 프로그램을 활용되었다.

결 과

요인 분석 결과

사전 요인분석 결과

요인 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요인을 추출하는 사전 요인 탐색 검사 결과 고유치가 1.0을 넘는 요인의 수는 한국 대학생 집단은 7개, 미국 대학생 집단은 8개로 나타났다. 스크리 검사(scree plot)를 실시한 결과 공통되게 설명력이 가중되어 있는 3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3요인은 한국 대학생 집단과 미국 대학생 집단에 대하여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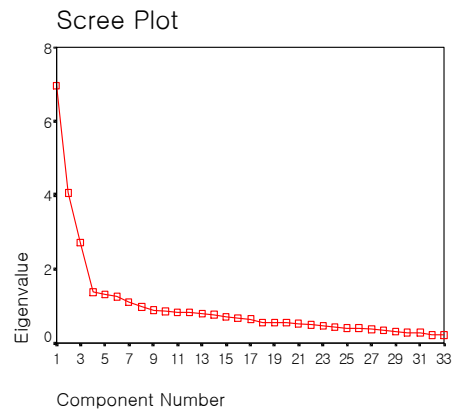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대학생 집단의 Scree 검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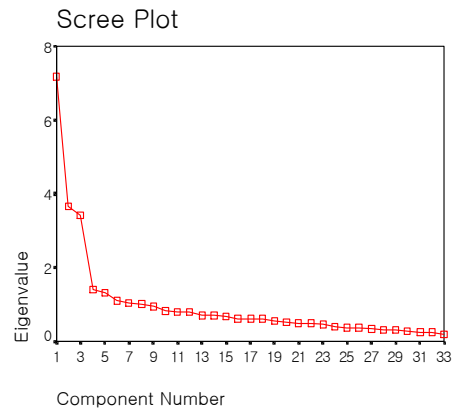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대학생 집단의 Scree 검사결과

전체 변량의 41.6%, 43.2%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스크리 검사의 결과는 그림 1, 2에 제시되어 있다.

주성분 분석 결과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에게 각각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를 실시한 결과 원검사의 요인 구조와 일치하는, 사회적 지지 추구, 문제해결 중심 대처, 회피 중심 대처의 3요인을 얻을 수 있었다. 미국 대학생과

표 1.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CSI)의 요인행렬(N=312)

문항	요인1(SSS)	요인2(PS)	요인3(AVO)
23번	.856 (.799)	.057	.031
12번	.799 (.744)	.122	.000
24번	.766 (.609)	.231	-.005
31번	.749 (.714)	.194	-.075
7번	.748 (.711)	.029	-.052
19번	.733 (.702)	.018	.091
1번	.729 (.707)	.087	-.170
14번	.729 (.715)	.160	-.054
32번	.728 (.732)	.154	-.041
25번	.668 (.625)	.150	-.059
5번	.641 (.674)	.009	-.020
17번	.048	.759 (.750)	.023
9번	.029	.684 (.650)	-.044
29번	.041	.681 (.737)	-.097
33번	.096	.676 (.715)	-.180
15번	.092	.667 (.675)	-.051
16번	.114	.606 (.673)	.126
8번	.050	.598 (.650)	.006
20번	.052	.546 (.587)	-.065
3번	.135	.517 (.682)	-.057
11번	.155	.511 (.580)	.023
2번	.114	.429 (.682)	.053
13번	-.068	-.042	.735 (.583)
10번	.023	.064	.637 (.637)
27번	.018	.072	.632 (.603)
30번	-.279	.051	.599 (.588)
21번	-1.99	-.006	.581 (.643)
26번	.011	.037	.578 (.486)
22번	-.045	-.033	.532 (.481)
28번	.011	.086	.501 (.500)
18번	-.077	-.172	.463 (.479)
4번	.117	-.175	.396 (.473)
6번	.051	-.103	.358 (.469)
교유치 (eigenvalue)	7.180	3.667	3.429
설명변량 (%)	21.758	11.112	10.390
누적변량 (%)	21.758	32.870	43.260

표 2.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K-CSI)의 요인행렬(N=279)

문항	요인1(SSS)	요인2(PS)	요인3(AVO)
23번	.803	.125	-.078
1번	.784	.024	.071
24번	.783	.144	-.071
14번	.782	.085	.023
7번	.767	.055	.040
31번	.698	.172	.104
12번	.654	.110	.087
5번	.612	.200	.074
19번	.567	.074	-.086
32번	.566	-.022	-.279
25번	.554	.163	.132
17번	.035	.755	.091
3번	-.018	.747	.062
15번	.091	.719	.048
33번	.118	.693	.076
29번	.197	.676	.050
16번	.071	.673	-.049
9번	.108	.673	-.092
20번	.137	.650	.097
8번	.045	.638	-.057
11번	.047	.580	.027
2번	.219	.493	-.014
21번	.243	.003	.609
28	-.215	-.065	.581
10번	-.025	.259	.498
26번	-.106	-.039	.498
4번	-.004	.121	.497
30번	.373	-.082	.481
27번	.146	-.099	.459
22번	.029	.023	.445
6번	.044	.106	.444
13번	.210	-.158	.420
18번	.066	.038	.286
교유치 (eigenvalue)	6.967	4.058	2.705
설명변량 (%)	21.111	12.297	8.196
누적변량 (%)	21.111	33.408	41.605

주. 괄호 안은 원 검사 Coping Strategy Indicator의 요인 부하량

표 3. 하위척도별 문항 내용

하위척도	문항	내 용
사회적 지지 추구 (social support seeking)	23	문제에 대한 당신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주위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까?
	1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정을 털어놓았습니까?
	24	주위사람들에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였습니까?
	14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책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문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까?
	7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기분이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겪은 문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까?
	31	친구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까?
	12	친구나 친지들에게 문제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에 대해 상의하였습니까?
	5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위로나 이해의 말들을 받아들였습니까?
	19	기분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가를 찾아갔습니까?
	32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문제 상황에 대해 당신을 안심시켜 주기를 바랬습니까?
25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주위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해주거나 위로해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문제해결 중심 (problem solving)	17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마음속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3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가능한 해결책을 모두 생각해 보았습니까?
	15	문제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33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신중하게 행동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하였습니까?
	29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까?
	16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였습니까?
	9	선택한 방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해보았습니까?
	20	그 상황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딪혀보았습니까?
	8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11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발견될 때까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습니까?
2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주변 상황을 다시 정리하였습니까?	
회피 중심 (avoidance)	21	대체로 사람들을 피했습니까?
	28	소설이나 영화의 등장인물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였습니까?
	10	더 좋은 때를 그리며 몽상만 하고 있었습니까?
	26	평상시 보다 수면시간이 더 늘어났습니까?
	4	문제를 외면하려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까?
	30	사람들이 당신을 그냥 혼자 내버려두기를 바랬습니까?
	27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하는 공상에 빠졌습니까?
	22	문제를 잊기 위해 취미나 스포츠 활동에 몰두했습니까?
	6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안 좋은지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까?
	13	평상시 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18	평상시 보다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보았습니까?	

한국 대학생에 대하여 요인 수를 3으로 지정하여 얻은 스트레스 대처 전략 평가지의 요인 구조는 표 2와 표 3에 각각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표 2와 같이 우선, 원 검사 CSI의 요인 구조와 이를 미국 대학생에게 실시하여 얻은 요인 구조가 일치하였고 표 3에서와 같이 원 검사 CSI를 번안하여 한국 대학생에게 실시한 결과, 역시 동일한 요인 구조가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학생집단에서 추출된 요인 구조 결과나 한국 학생 집단에서 추출된 요인구조나 모두 원검사와 정확히 같은 형태로 33문항이 11문항씩 각 요인에 소속되었는데, 이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신뢰도

각 요인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 집단에 대하여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양호한 신뢰도 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한국과 미국 집단 모두 세 번째 요인인 회피 중심 대처 척도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것 역시 원 검사의 신뢰도 특성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하위척도 간 상관관계

표 5와 표 6은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의 세 하위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표 4. 하위척도별 내적일치도

	한국 대학생 (Cronbach α)	미국 대학생 (Cronbach α)
사회적 지지 추구	.90	.92
문제해결 중심 대처	.88	.84
회피 중심 대처	.67	.77
전체	.84	.86

표 5. 한국대학생 집단의 하위척도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문제해결 중심 대처
문제해결 중심 대처	.292**	
회피 중심 대처	-.110	-.072

** p < .01

표 6. 미국대학생 집단의 하위척도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문제해결 중심 대처
문제해결 중심 대처	.292**	
회피 중심 대처	-.110	-.072

** p < .01

앞서 제시된 요인행렬의 요인 부하 특성과 함께 각 대처차원의 상호독립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의 세 하위 척도는 한국대학생과 미국 대학생 집단에서 모두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사회적 지지 추구, 문제중심, 정서중심의 각 대처 차원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상호 독립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 학생 집단 모두에서 회피 중심 대처 요인이 다른 두 요인, 즉 사회적 지지 추구하고 문제해결 중심 대처 요인과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사회적 지지 추구하고 문제해결 중심 대처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원검사에서 제시한 각 요인의 개념이 미국대학생과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요인 구조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직접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는 회피중심의 대처 방식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조언이나 정서적 지지를 찾음으로써 대처하려는 사회적 지지 추구 방식이나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맞부딪혀 직접적으로 문제를 다루려는 문제 해결 중심 대처 방식과는 상

반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 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원 검사가 제시한 각 하위 척도의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와 한국과 미국 대학생 집단의 각 하위 척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 편차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스트레스 대처 전략 원검사의 규준에 비추어볼 때,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 집단 모두 규준으로부터 그 평균점수와 표준편차가 안정적인 범주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의 하위 척도 점수 규준이 한국 대학생 집단과 미국 대학생 집단에서 신뢰성을 가지고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7을 보면 3개의 하위 척도 점수 중 사회적 지지 추구 점수부분에서만 남녀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역시 원 검사 제작시

Amirkhan(1990)이 사회적 지지 추구 하위 척도 점수에서만 남녀 성차를 보고했던 것과 같은 결과이다. 또한 양 집단 모두에서 회피 중심 대처보다는 사회적 지지 추구나 문제해결 중심 대처 하위 척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에서 제시한 규준과 같은 유형을 보여준다.

하위 척도 점수와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의 관계

설문지 응답 시 한국 대학생 집단과 미국 대학생 집단 모두에게 학년과 나이, 전공, 성별 등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함께 표기하도록 했는데,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각 하위 척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단계의 분석이 실시되었다.

우선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나이, 학년, 전공, 성별 중에서 성별만이 하위 척도 점수에

표 7. 요인별 하위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한국		미국		CSI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사회적 지지 추구	24.11 (5.14)	21.43 (4.91)	26.73 (5.31)	22.80 (5.92)	23.0 (5.0)
문제해결 중심 대처	23.61 (4.89)	23.81 (4.36)	25.20 (4.39)	24.99 (4.59)	26.0 (5.0)
회피 중심 대처	19.51 (3.86)	20.33 (3.93)	19.18 (4.18)	19.83 (4.79)	19.0 (4.0)

주. 한국 대학생 (여: N=204 남 N=75) 미국 대학생 (여: N=223 남 N=89) () 안은 표준편차

표 8. 하위척도 점수의 성차에 대한 t검증 결과

	한국 대학생			미국 대학생		
	F 유의도	자유도(df)	t 값	F 유의도	자유도(df)	t 값
사회적 지지 추구	.582	277	.000	.409	310	.000
문제해결 중심	.591	277	.117	.976	310	.697
회피 중심	.076	277	.755	.029	310	.237

주. 한국 대학생 (여: N=204 남: N=75) 미국 대학생 (여: N=223 남: N=89)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음으로 각 하위 척도 점수에 대하여 한국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간에 차이와 미국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간의 차이를 t-test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8에서처럼 세 요인 중 사회적지지 추구 하위 척도 점수만이 한국 대학생 집단과 미국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여학생과 남학생간에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대처 연구 분야에서 그 심리 측정적 조건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Coping Strategy Indicator: CSI, Amirkhan, 1990)의 한국 문화 적용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를 한국어로 번안, 보완하여 한국 대학생에게 실시하였고, 원검사의 표준화 연구가 10여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현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미국 대학생에게 영문 원검사를 함께 실시하여 요인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문화간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검사와 동일한 사회적 지지 추구, 문제중심 대처, 회피중심 대처의 3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는 Amirkhan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과 대상집단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처 구조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했던 바와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뢰도와 각 하위 척도별 평균 점수 및 표준 편차도 원검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미국 대학생 집단 모두 매우 양호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전체 33문항은

원검사가 제시하는 3요인과 정확하게 일치하여 소속됨으로써 요인구조가 횡문화적으로 안정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Amirkhan은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를 개발하면서 사회적 지지 추구는 역경에 처했을 때 정서적이든 도구적이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대인 접촉 요구의 반영이라고 밝혔으며, 문제중심은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접 뛰어들어 해결하려는 측면을, 회피 중심은 문제상황에 맞부딪히기 보다는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외면하려는 측면을 반영함으로써, 이들 세 요인이 문제중심 대 정서중심 대처 차원, 회피 대 접근 중심의 대처 차원과 같은 기본 구조를 포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기본 구조의 안정성이 번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도 재확인될 수 있었다.

한편, 각 하위 척도가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생 집단과 미국 대학생 집단 모두에게서 세 번째 요인인 회피 중심 대처 차원의 신뢰도와 요인 부하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Amirkhan의 초기 표준화 연구에서도 회피 중심의 하위 척도가 다른 두 척도보다 내적 일치도가 낮게 나타난 것과 같은 현상으로, 회피 중심 대처 차원에 대한 후속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하위척도 점수와의 비교에서도 한국과 미국 대학생 양 집단이 성별만이 유의한 영향 요인임이 밝혀졌으며 대처 양식 선호도와 성차의 관계에서는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양식만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선호한다는 성차를 보여 원검사의 표준화 과정에서 스트레스 원에 상관없이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차원만이 성별의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와 다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프리카 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의 타당도 검증은

실시한 연구에서, 남학생은 문제 해결 중심 대처 차원에서, 여학생은 회피 중심 대처의 하위 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남학생은 적극적 대처를, 여학생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대처 양상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Ager & Maclachlan, 1998) 결과와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의 요인구조의 횡문화적 안정성을 확인함으로써 한국문화에서 CSI의 활용가능성을 경험적으로 밝혔는데 의의가 있다. 문화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 뿐 아니라 미국 대학생 비교 집단에도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를 실시함으로써, 원검사의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여러 가지 심리측정적 근거를 뒷받침으로 하여 명시해주고 있다. 요인 부하량, 신뢰도, 평균점수와 표준 편차, 성차의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원검사가 제시하는 평가기준과 더불어 미국 대학생 집단, 한국 대학생 집단과 비교하여 밝힘으로써,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가 제시하는 사회적 지지 추구, 문제해결 중심, 회피 중심의 기본 대처차원의 구조가 문화가 시대를 거슬러 보편적인 대처 양식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동안 대처 연구 분야에서는 문제중심-정서중심 차원, 회피-접근의 대처 차원 구분이 너무 단순하다는 비판 속에서도 보편 타당한 대처의 범주라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서구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배경 집단에서도 타당성이 재확인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문화간 타당화 검증

의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가 한국과 타 문화집단의 대처 양식의 비교 문화 연구에 유용한 도구로서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는 횡문화적으로 보편 타당성을 지닌 사회적 지지 추구, 문제 중심 해결 중심의 기본 대처 구조를 평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가 제시하는 대처 개념과 차원이 한국과 타문화간에 대처 기제의 비교 문화연구의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평가 질문지를 적용을 평가하는 다른 심리 사회적 평가 도구들과 결합하여(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대처와 적응간의 관계성을 살펴봄으로써, 비교 문화 연구에도 기여가 크리라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평가도구의 문화적 타당도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대처 연구가 서구문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만큼 대처 전략 평가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작업도 주로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는데, 한국과 같이 서구문화와 여러 가지로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문화권에서 문화간 타당도 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고 평가도구에서 제시하는 구성개념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요인 부하량이 낮게 나타난 18번 문항의 경우,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탐색해보거나 또는 한국 문화권의 풍토에 맞게 새로이 변형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문화간 타당화 검증 과정이 없었다면 그대로 간과되어 버렸을 부분들이다.

문화간 타당화 검증 작업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평가도구의 구성개념이 대상 집단에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밝혀주고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평가도구가 새로운 대상 문화권에서 얼마만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구조의 동일함을 밝힌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뢰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범위, 성차의 영향 등과 같은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의 문화간 타당도 확립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검증의 대상이 된 스트레스 대처 전략 평가지는 여러 가지 심리측정적 조건을 충실히 만족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구성이 명료하고 실시와 채점이 간편한 실용적인 평가도구이다. 이제 본 연구를 통해 문화적 타당도가 부분적으로 검증됨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많은 적용 연구와 임상 실제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한국 문화에 적응과 대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그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리라고 보여진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 및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 표집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문화간 타당화 검증 작업은 대상 문화의 다양한 인구 집단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에 한정하여 타당화 검증이 실시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대학생 집단 모두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 추후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직업, 교육수준 및 연령층과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대상을 표집하여 문화간 타당도를 재검증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원검사의 표준화 작업에서와 달리 스트레스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분류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대처 하위 요인이 어떠한 스트레스 유형과 특히 관련이 깊은지와 같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문화가 경험되는 스트레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는

데(Aldwin, 1994),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회적지지 추구, 문제해결 중심, 회피 중심 대처 차원과 한국인의 스트레스 유형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셋째, 번역상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 문항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면서도 한국인들에게 자연스럽고 친숙한 표현으로 문항을 구성하고자 원어민 유학생,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 일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상담 전문가에게 반복하여 검증을 거쳤다. 그러나 언어,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타 문화권의 평가도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한편, 본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문화간 타당화 검증의 일환으로 원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심리측정적 특성을 밝히는 것으로 연구 주제를 한정했으나 한국 문화에서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가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요인구조 비교에 의한 방법 이외에도 수렴, 변별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성관련 타당도 확립을 위한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앞서 지적된 것처럼 좀더 대표적인 표집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 검증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처 전략을 규명하고 평가하는 근본 목적은 적응을 촉진시키는 대처 기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에 따라 내담자의 적응을 돕는데 가장 효과적인 개입을 계획하고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가 이론 및 실제에서 유용한 도구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에서 제시하는 대처 기제들과 여러 가지 정신, 신체적 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준거관련 타당도

및 예언 타당도의 정보를 축적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룬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의 대처 구조는 문화간에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대처 차원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본 평가지가 한국인의 독특한 대처 양식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요인 설명량이 전체의 40%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 고유의 대처 특성을 보다 민감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대처 구조 외에 한국의 특정 문화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대처 차원을 포함하는 새로운 대처 측정도구 개발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민하영 (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 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용천, 김광일 (2000). 한국 고등학생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대처 검사(CISS)의 타당도 평가. 한국신경정신과학회지, 39(1), 55-64.
- 이경희 (2001). 진로신념검사(Career Beliefs Inventory)의 변안과 문항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최재연 (2000). 정서중심적 대처의 재개념화: 기능적 유사성에 근거한 대처차원의 구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ger, A., & Maclachlan, M.(1998).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oping strategies indicator (CSI) in a study of coping behavior amongst Malawian students. *Psychology and health*, 13, 399-409.
- Aldwin, C. M. (1994). Culture, stress, and coping. In C. M Aldwin.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 An integrative perspective*(pp. 191-215.). New York : Guilford Press.
- Amirkhan, J. H.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66-1075.
- Amirkhan, J. H. (1990). Manual for Coping Strategy Indicator (CSI).
- Amirkhan, J. H. (1994). Criterion Validity of a Coping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2, 243-261.
- Bijttebier, P., & Vertommen. H.(1997).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in a Flemish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3, 157-160.
- Broody, E. (1995). Th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of refugees: issues and directions. In Marsella, A. J., Bornemann, T., Ekblat, S., & Orley, J. (Eds.), *Amidst Peril and Pain: Th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of the world's refugees*. (pp. 57-6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a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Chang, E. C. (2001) A look at the coping strategies and styles of Asian Americans: Similar and Different? In C. R. Snyder (Eds.), *Coping with stress: Effective people and process* (pp. 222-239).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ssau, C. A., & Trommsdorff, G. (1996). Coping with university-related problems; A cross-cultural comparison.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27, 315-328.
- Hung, F. I. (1999). *Three Dimensions in Strategic Coping: A Cross-Cultural Analysis of Taiwanes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 Holahan, C. J., Moos, R. H., & Schaefer, J. A. (1996) Coping, stress, resistance, and growth: Conceptualizing adaptive functioning. In M. Zeidner & N. M. Endler (Eds.), *Handbook of coping* (pp. 25-43). New York: Wiley & Sons, Inc.
- Hudek, J., Kardum, I., & Vukmirovic, Z. (1999). The structure of coping styles: A comparative study of Croatian sampl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3, 149-161.
- Jo, H. I. (2000). Reliability and Validity for the Coping Inventory for Stressful Situation(CISS) i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 205-214.
- Kim, C. D. (1994). *The coping process of Koreans as compared to white Americans: The influence of cult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Lazarus, R. S. (1993). Coping theory and Research : Past, present, and future *Psychosomatic Medicine*, 55, 234-247.
- Lazarus, R. S. (2000). Toward Better research on stress and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65-673.
- Moos, R. H., & Schaefer, J. A. (1993).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Current concepts and measures. In L. Goldberg & S. Breznitz(2nd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pp. 234-257). NY: Free Press.
- Parker, J. D. A., & Endler, N. S. (1992). Coping with coping assessment: A critical review.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6, 321-344.
- Schere, R. F., Hwang, C. E., & Yan, W. (2000). The dimensionality of coping among Chinese health care worker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0, 317-327.
- Schwarzer, R., & Schwarzer, C. (1996). A critical survey of coping instruments. In M. Zeidner, & N.M. Endler(Eds.), *Handbook of coping* (pp. 107-132). New York: Wiley.
- Seiffge-Krenke, I., & Shulman, S. (1990). Coping styles in adolescence: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21, 351-377.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a). Positive psychology: Special issue.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omerfield, M. R., & McCrae, R. R. (2000) Stress and coping research: Methodological challenges, theoretical advances, and clinical applications. *American Psychologist*, 55, 620-625.
- Sperber, A. D., Devellis, R. F., & Boehlecke, B. (1994). Cross-Cultural translation: Methodology and valid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5, 501-524.
- Stone, A., Kennedy-Moore, E., Greeberg, M., & Newman, M.(1991). Self-report, situation-specific coping questionnaires: What are they measu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648-658.

- Yeh, C., & W, Y.(2000). Asian American Coping Attitudes, sources and practices: Implications for indigenous counseling strategi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1, 94-103.
- Yue, X. D.(2001). Culturally constructed cop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Beijing. *Journal of Psychology in Chinese Societies*, 2, 119-137.

원 고 접 수 일 : 2002. 9.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1. 28
게 재 결 정 일 : 2002. 12. 3



A Validation Study of Coping Strategy Indicator(CSI)

Hae-Jin Shin

Chang-Dai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ross-cultural validity of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CSI) that is regarded as a promising coping measure for its psychometric robustness. For this,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in two stages. At the first stage, CSI was translated from English into Korean. Differences between the original version and the re-translation were compar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Korean translation. At the second stage, the factor structures of the CSI in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were compared with the published factor structure of the CSI. The subjects were 279 Korean students from 6 universities and 312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students were asked to complete Korean version of CSI. And American students completed the original version of the CSI.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Internal consistency was examined by Cronbach α . subscale intercorrelations, mean scores, standard deviation, and relationship to demographics were estimated as wel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actor analysis in both the American and Korean samples yields a clear three-factor solution with the same factor structure as found in the original study of CSI validation. Three factors are social support seeking, problem solving, and avoidance. In the case of the American sample, 43.3% of the total variance is explained by three-factor solution, while 41.6% in the case of the Korean sample. Second,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s for the three subscales of the CSI range from .67 to .92 for American and Korean students. Cronbach α coefficients are high for both social support seeking and problem solving and moderately high for avoidance, which is a similar pattern with that of original version of CSI. Third, intercorrelations between subscales are very low. Only the low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seeking and problem solving is significant for both the American and Korean samples. Fourth, mean score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female and male students on each of CSI scales were compared with norms established through the initial CSI validation study. Results show that all cases belong to the criteria defined as 'average' by original version of CSI. Fif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such as age, gender, and scores on the three scales of the CSI was examined. As in the original study of CSI, only social support seeking was influenced by gender for both American and Korean students, with females relying more on this coping mode than males

Key Words : coping, Coping Strategy Indicator(CSI), culture, cross-cultural validation